美, 한국에 아프간 재건팀 요청

군 경계병력 포함 200~300명 규모…정부 고심

미국은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200~300여명 규모로 증원, 파견해 주도록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프간에서 한국의 '비군사적 지원'을 언급한 것과 무관치않다는 관측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미국은 우리 정부에 아프간 PRT 요원의 확대 파견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정부 관련부처에서 미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나라는 의료진을 중심으로 18명의 소규모 PRT 요원을 아프간에 파견해 놓은 상태"라면서 "하지만 미측은 올해 초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이 아프간의 1개 지역을 맡아 활동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개 지역에 필요한 PRT 요원은 보통 200~300여명"이라며 "1개 지역의 PRT에는 경찰, 의료, 건설, 교육 요원 뿐 아니라 이들의 신변보호 임무를 맡게 될 소규모의 군 경계병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은 PRT 확대 파견 문제에 대해 '최대한 성의를 보여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관련부처에서는 민간요원 수백여 명을 아프간에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그런 요청이 들어온 바 없다"면서 "애초 동의·다산부대가 철수할 당시 우리 측이 PRT 파견을 제안해 미국이 맡고 있는 지역에 우리 측 요원 30명 가량을 파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시 미국은 PRT를 파견하려면 한 지역 정도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지만 우리 측이 난색을 표명, 이같이 결정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아프간 34개 주 중 31개 주에서 25개의 PRT가운영중이며 캐나다와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참여하고있다. 우리 나라는 민간 및 군 의료진, 직업훈련 전문가 등 18명의 PRT 요원을 파견한데 이어 이달 말에는 병원 시설안전 등을 위해 5명의 경찰요원을 추가 합류시킬계획이다. /연합뉴스

남오세티야 독립을 놓고 촉발된 그루지야와 러시아 간 전쟁이 3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군인들과 탱크, 장갑차가 남오세티야 수도 츠한빌리 일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6자회담 진전 협력 합의 한중 정상 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9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및 외교장관 회동 결과에 대해 긍정 평가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2단계 검증 단계에 들어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은 후 주석의 지도력 영향이 크다"면서 "북핵문제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성공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면서 "6자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후 주석도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핵문제가 진전되는 것에 대해 평가한다"면서 "북핵문제의 해결은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 주석은 그러면서 "남북한이 화해 협력하는 것은 남북한 국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평화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비록 일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남북한이 대국적으로 대응하고 자주 의사소통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또 지난 5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과 관련, 향후 후 주석의 방한 때 이에 대한 구체화 방안을 협의키로 합의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성대한 개막을 축하했고, 후 주석은 올림픽 개최 준비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당초 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후 주석은 남북한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으나 실제 회담에서는 금강산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배석한 이동관 대변인은 밝혔다. /연합뉴스

中신장 폭탄테러 경찰 등 8명 숨져

중국의 북서부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10일 오전 분리주의 세력으로 보이는 범인들이 공안과 정부기관 등에 무차별적으로 사제 폭탄을 투척했다.

폭탄 투척과정에서 범인 7명이 공안 총격에 맞거나 자폭으로 숨지고 1명의 보안요원이 사망했다.

신화통신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새벽 2시 30분 신장 남부 쿠처현에서 범인들이 택시를 몰고 공안국 마당에 뛰어들어 사제 폭발물을 던져 1명의 보안요원이 숨지고 2명의 경찰과 민간인 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경찰차량 2대도 불탔다.

공안은 현장에서 범인 1명을 사살했으나 다른 1명은 자살했다. /연합뉴스

러시아, 해군 동원 총공세

그루지야 수도 인근 폭격…그루지야軍 남오세티야서 철수

교전 3일째 2천여명 사망…국제사회 휴전 촉구

남오세티야 독립을 놓고 촉발된 그루지야와 러시아 간 전쟁이 3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러시아가 그루지야 수도 트빌리시 인근 군 비행장을 폭격하고 해군까지 동원하는 등 점점 그루지야의 목을 죄어 오고 있는데다 친러 성향의 또 다른 자치공화국 압하지야에서도 그루지야군과의 무력 충돌이 일면서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러시아 군의 총공세에 그루지야는 이날 남오세티야에서 군대를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져 10일이 이번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전이 계속되면서 민간인을 포함해 사상자 수가 2천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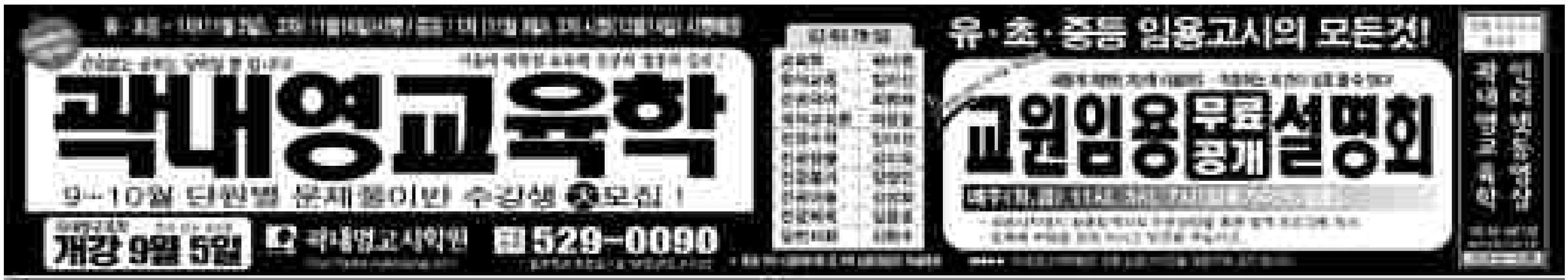
러시아 전투기들이 10일 오전 트빌리시 국제공항 인근 군 비행장에 여러 발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그루지야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또 전날 러시아 전투기들이 트빌리시 인근 고리 지역을 공습해 수십 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수백 채의 건물이 파손됐다고 목격자들이 현지 언론을 통해 전했다.

이와 함께 1만명의 러시아 군인들과 탱크, 장갑차가 그루지야 국경에 집중 배치되고 압하지야 아찹치라항에 러시아 해군 함정이 도착하는 등 러시아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남오세티야 공화국 대변인은 "밤새 교전으로 20명이 숨지고 15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그루지야 내부무가 이날 그루지야 군의 남오세티야에서의 철군을 발표해 주목된다.

전쟁 3일째를 맞으면서 사상자 수도 늘어 그루지야 외무부는 현재까지 150명의 그루지야인들이 사망했다고 발표했고 러시아 관리들은 남오세티야에서 적어도 2천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EU 의장국인 프랑스 정부와 대통령관저인 엘리제궁은 9일 각각 성명을 내고 그루지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금주 초에 EU 긴급 외무장관 회담이 소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전쟁 반발 후 처음으로 9일 성명을 통해 그루지야에서의 즉각적인 무력 사용 중지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연합뉴스